



▲ '2019 경기마을미디어축제' 성황리 종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난 달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 '경기마을미디어축제'가 많은 마을미디어 공동체와 콘텐츠 창작자들의 주목을 받아 성황리에 폐막했다. 총 2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경기마을미디어' 축제는 마을미디어발전 방안 포럼과 시상식, 공개방송을 진행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수원/김영선 기자

'로또 청약' 부문 꿈에 과천·광명 물리는 청약 난민

과천·광명,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 꾸준한 증가 "분양 밀리며 아직 기회 있다"... 전셋값 급등 초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로또 청약 기대감에 과천과 광명 등 수도권 알짜 지역의 청약통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 분양 일정마저 마냥 늦어져 로또 청약 기대감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경기 과천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만 2937명이다. 1년 전(2만1376명)보다 1561명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1순위 가입자 수가 월평균 100여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11월 1

순위 가입자 수는 2만30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광명 역시 과천과 비슷한 추세다. 광명시의 10월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1만 338명 증가한 10만3432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9월보다도 1245명 늘었다. 상승 폭은 광명이 과천보다 더 컸다. 광명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1.1%로 과천(7.3%)보다 더 높았다. 과천과 광명의 공통점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알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울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함께 상승했고, 상승 폭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과천의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91%로 서울 강남권(0.6%)의 3배 이상에 달했다. 부동산업계는 과천과 광명의 청약 통장 가입자 수 증가 배경에는 로또 청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두 지역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면 수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HUG 규제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다. 애초 올해 8월 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분양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난달 29일 열린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재심의를

부결됐다. 과천시는 지난 7월 책정한 분양가 3.3㎡당 2205만원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통보했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 불투명으로 대기 중인 과천제이드자이 등 다른 단지들도 분양 시기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이주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며 "로또 청약을 노리고 몰려오는 투기 수요에 원주민의 기회가 줄어드는 (분양가 규제) 역효과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고양시 "수색역 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안돼"

경기 고양시는 최근 불거진 '수색역 차량기지의 고양시 이전'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의 서울시 개발사업에 따른 기파·협오시설 이전 불가는 물론 구체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5대 부도심권으로 계획된 상암수색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차량기지를 인근 고양시 물류기지로 기거가된 덕은동 지역이 검토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위해 기파시설을 인접한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색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3년 9월 '고양 수색역 북부선로 및 물류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덕은동 97번지 일원 철도공사 소유 토지로, 부지 면적 35만9920㎡에 객차·발전차기관차 검수를 위한 정비고와 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13년 물류시설을 위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시에도 소음, 진동, 교통정체 등 주민피해 발생과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향후 수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임의반대를 경기도에 표명한 바 있어 서울시에 의한 도시 연담화(연접화)되어 있는 여러 도시들이 기능을 서로 분담하여 하로서

서울시 기파·협오시설 이전 불가 차량기지 이전 일방적 사업 반대 의 도시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처럼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도시는 아예 종속되거나 교외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음) 방지 대책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다른 지역의 차량기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양/김영선 기자

알림 문화매일 전국주재기자 모집

- 전국종합일간지 문화매일에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본지는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들을 모집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 1. 전국 광고국 임원 특별대우 2. 채용인원: 전국 주재기자 및 본부장급 (전국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3. 응시자격: 학력 성별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4. 접수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5. 접수기간: 채용 완료시 까지 6. 채용방법: 직접 면접 (통신 면접도 가능) 7. 접 수 처: 총무국 (02)2612-2959 fax (02)2060-4147 8. 전 화 문 의: 대표전화.1899-9659 H.P. 010-6440-4147

민주당 "한국당,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책임있는 조치 없으면 타야당과 법 원칙 따라 행동 나설 것" 주장 조 의장은 "한국당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은 "BMW 화재사건 이후 리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멈췄고 주택법 개정안 (처리 난항으로) 주택청약 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위험"이라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망가지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더 이상 국민은 기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국당이 정말 고귀한 가치인 자유주의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 독선한국당, 망국한국당, 방조한국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은래 의원은 데이터 3법 가운데 과방위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국당 간사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제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된다고 본다"며 "국회법에 따라 조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귀성 기자

청력(청)보화.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GREEN ENERGY. 봉화군.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이 당신을 반깁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땅을 간직한 봉화...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멋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광지,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봉화로 오세요!



# 경북도, 감사원 우수 민원처리 기관표창 수상

## 공익제보 처리를 통한 도민 불편 해소 '최고' 도 소방본부 배증직 소방위 우수공무원 선정

경북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제일의 클린 경북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최근 감사원에서 개최된 '2019년 감사민원 처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행사'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도 소방본부 배증직 소방위는 우수처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행사는 감사원에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예산절감,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 그 제보를 성실히 조사·처리한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2개 기관이 우수처리 기관으로 선정됐고, 우수처리 공무원으로는 경북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며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소방본부 배증직 소방위를 포함하여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총 46건의 민원을 이첩 받아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민신문고와 진정서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제기한 민

원 총 55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력 2명을 충원하고, 적극행정지원을 위해 적극행정면책 심사를 활성화하여 전년도에 비해 그 건수가 5배 증가하도록 했으며, 직원 및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청렴간담회를 37회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경북도는 지난 11월 22일 감사원에서 선정한 '2019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구'에도 포함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구는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전년도 대비 그 결과가 크게 향상된 자체감사기구로서,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활동, 성과, 사후관리 등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올해는 11개 우수기구와 7개 발전기구



가 선정되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올해 도청 전 직원이 동참하여 그 동안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정과 청렴으로 스스로 담당하고 도민에게 자랑스러운 '새바람 청렴경북' 만들기에 함께 노력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사전예방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소극적·복지부동의 업무 행태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용인어린이상상의숲, 'SK텔레콤 ICT 체험관' 개관

### 어린이 융·복합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미래직업 체험·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재)용인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하 '상상의숲')에서 용인시 유소년 미래직업 체험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개관하는 'SK텔레콤 ICT 체험관'의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개관식은 백군기 용인시장 주관으로 SK텔레콤 관계자, 용인시의원, 용인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관내 초등학생 2명 등을 비롯해 상상의숲 주방문객인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했으며, SK텔레콤 ICT 체험관 가림막 제거를 시작으로 풍선 퍼포먼스·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재단과 SK텔레콤은 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10월 MOU를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4차 산업연계 기술 체험 제공을 목적으로 SK텔레콤의 ICT 콘텐츠를 무상 제공받아 상상의숲

내 ICT 체험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재단은 ICT 체험관 개관과 함께 상상의숲을 찾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ICT 기술(AR, VR 등)로 미래 직업 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상의숲 1층에는 SK텔레콤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한 코딩로봇 체험 콘텐츠인 '알버트 독립영웅구하기'도 함께 오픈하여 기존의 로봇놀이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코딩로봇 알버트 코딩체험'과 더불어 흥미로운 코딩 체험 환경을 제공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축하사를 통해 "이번 SK텔레콤 ICT 체험관 개관을 통해 용인시 어린이들이 4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를 상상의숲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ICT 체험관을 비롯한 상상의숲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332-7500

용인/남시현 기자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가시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3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수립'과 관련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동북아 新해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수립이 막바지 단계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마산해양신도시 간접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예정인 조간대 및 내호구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돼 마산항 진입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개발 계획이 확정됐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민과 언론 등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민간사업자의 일괄 계획·개발 방식으로는 민간이 원하

는 수익성과 시민이 바라는 공익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개발방향을 수립해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다.

시는 창원시정연구원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 방향 수립 연구용역과정에서 수립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제언을 반영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성이 담보된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지구로 개발해 지역경제 견인 및 관광 중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 12월 중으로 개발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시는 동북아 新해양 거점도시로서 도심지 내 위치한 대규모 친수공간으로 조성돼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원과 돌섬유원지, 마산어시장,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창원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창원의 도시, 경제,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최민석 기자



## 파주, 등산트레킹문화개선최우수상

경기 파주시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7회 등산트레킹문화 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는 이번 대회 수상으로 대회 개최 이래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적성 감악산악회' 입상 기록으로 단체 부분에서는 2회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해당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전 소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등산트레킹문화 개선 경진대회는 건전한 등산 트레킹문화 개선과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 증진과 대국민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파주시는 올해 초 산악회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6개 단체 약 800명에 해당하는 '우리 명산 숲길 지키미'를 선정해 파주의 명산 곳곳 등산로와 산책로의 청결 활동과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건전 산행문화 캠페인을 펼쳤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의 명산 가꾸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동참한 여러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산림 행정으로 늘 찾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 전남도, 2020년 축산 ICT융복합에 140억 투입

### 5일까지 시군서 사전 컨설팅 접수 내년 1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키로

전남도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140억 원 가운데 국비 42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다. 융자의 경우 금리 2%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취급 기관은 농협은행이다. 전라남도는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5일까지 1차 예비 사업자를 각 시군을 통해 신청받고 전담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대상자를 내년 1

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춰진 축사 또는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축사시설 구축이 예정돼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 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다.

지원 축종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등이다. 지원 자금은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사용할 수 있다.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해 단순히 활용하는 일반형과,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거나 로봇착유기처럼 단일 장비이긴 하나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 등에 활용하는 전문형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지원 분야별로 환경관리의 경우 축사 내부 온도·습도·정전·화재, 외부 온도·습도·풍향·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을, 사양관리의 경우 사료빈 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 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을, 경영관리의 경우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을 위해 지원된다.

배운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세부 사업 추진 요령 및 지침을 각 시군과 생산자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스마트팜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김덕윤 기자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Hanam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huic 하남도시공사



#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쥐띠해! 에버랜드,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2020 Begin Again with Everland)

내년 2월까지 6개 빅 이벤트! 새로운 시작 알리는 2020 캠페인 진행  
십이간지 중 첫 번째 쥐띠해, 100여 년만에 같은 숫자(20) 반복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대표 정금용)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6개의 빅 이벤트와 함께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2020 Begin Again with Everland) 캠페인을 펼친다.  
2020년은 십이간지 동물 순서 중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쥐띠해이자,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다.  
또한 지난 1919년에 이어 100여 년만에 같은 숫자(20)가 반복되는 특별한 해로 에버랜드는 고객들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에버랜드는 희망과 감사, 도전, 설렘을 테마로 고객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명을 뽑아 에버랜드 이용권, 캐릭터 상품, 음료 기프트콘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며, 우수작품을 선정해 연말연시 기간 지름 40미터 크기의 초대형 우주관람차 스크린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거꾸로 역주행하는 새로운 롤러코스터도 국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길을 반대로 달릴 때 새로운 시각의 다양성을 갖게 된다는 취지로 개발된 '역주행 레이스 코스터'는 6일부터 연간회원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14일부터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도 전면 오픈해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에버랜드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벽에 걸어 보는 '2020 위시월(wish wall)' 이벤트도 12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에버랜드는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코리아와 함께 위시월에 걸리는 소원의 숫자 만큼 특정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출연해 소외지역 아동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희망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2019년!

- △2020년 나의 꿈 그리기 대회
- 거꾸로 가는 레이싱
- 코스타위시월(wish wall) 소원 적기
- 2020년 카운트다운 불꽃쇼

먼저 희망과 감사를 테마로 한 12월에는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의 첫 번째 이벤트로 '2020년 나의 꿈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이 달 2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지는 나의 꿈 그리기 대회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0년에 이루고 싶은 나의 희망찬 꿈을 그림으로 그려 에버랜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응모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중 총 220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 에버랜드 포시즌스가든에서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불꽃쇼가 펼쳐진다.  
카운트다운 불꽃쇼는 올해 에버랜드를 찾아 주신 고객들에 대한 감사와 2020년 새로운 희망의 의미를 담아 2020초(약 33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스페셜 공연이 펼쳐진 후 밤 12시 정각에 맞춰 평소보다 3배 이상인 초대형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 놓는다.  
특히 에버랜드는 2020년을 시작하는 카운트다운 불꽃쇼 현장을 유튜브, 네이버TV 등 에버랜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카운트다운 불꽃쇼 당일(12/31) 한정 에버랜드 이용권을 57% 이상 할인한 가격에 12월 9일부터 네이버 예약에서 단독 판매할 예정이다.



▲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 레니와 라라

## 20가지 에버랜드 이용법, 20살 위한 청춘 설렘 축제 등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 지속 펼쳐

### ○도전과 설렘으로 시작하는 2020년!

- △ 에버랜드 20가지 이용법
- 20살 청춘 축제 '헬로 마이 트웬티즈'

질을 이미 경험한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설렘 사진관, 청춘 응원 공연 등 설렘이었던 스무 살을 추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에버랜드는 고객들이 에버랜드와 함께 특별한 202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나갈 예정이다.

홍인/남시현 기자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은 카운트다운 불꽃쇼와 함께 시작한 2020년에도 계속 펼쳐진다.  
먼저 1월에는 도전을 테마로 고객들이 숫자 '20'과 관련해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20가지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 간 매일 2020명 선착순으로 역대급 우대가를 제공하고, 2020년에 결혼 20주년, 입사 20주년 등 20과 관련된 사연이 있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가격 혜택을 선물하는 것이다.  
2020년 에버랜드를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가지 이벤트는 12월말 경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1월에 이어 졸업 시즌인 2월에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담은 청춘 축제 '헬로 마이 트웬티즈(Hello My Twenties)'가 펼쳐진다.  
2020년에 스무 살을 맞이하거나, 스무 살 시



▲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 퍼레이드 연기자

'희망·감사 → 도전 → 설렘' 테마로 다양한 이벤트 순차 오픈  
나의 꿈 그리기, 소원 적기, 거꾸로 가는 롤러코스터 등 선보여  
31일 밤에는 새해 알리는 카운트다운 불꽃쇼... SNS 현장 생중계



▲ 2020 비긴 어게인 워드 에버랜드 캠페인 에버랜드 캐릭터와 직원들

산골길 걷는 선비 (산골길 걷는 선비)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출발! (출발! 선비나라)  
가야의 메켄지 (가야의 메켄지)  
건국 70주년 기념 (건국 70주년 기념)  
[화면] (화면)  
[인물] (인물)  
[전통] (전통)  
[자연] (자연)  
[역사] (역사)  
2030 (2030)

경북을 이어가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경북에서 당신이 이어나갈 여덟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경북을 잇다 HiStory 경북

경상북도 GCTO  
경북북도문화관광공사



# 경북도, 과학산업 발전의 KEY,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참가

### 2020년 경북도 신규 특구계획 소개 및 기업상담회 실시 벨로모빌,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도정역량 집중



경북도는 최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는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체가 함께 개최한 행사이다.

박람회는 각 특구사업별 기업상담, 2019년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홍보 그리고 2020년 기획하고 있는 예비특구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개최되었다.

경북도는 내년 예비특구계획으로 차세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 헴

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박람회에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여 기업들에게 정책에 대해 알리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10Km미만의 근거리 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3륜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활용·레저용·관광용 제품생산 및 공유경제서비스를 실증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10Km 미만의 이동에 대부분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벨로모빌로 대체한다면 교통체증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북도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낙동강 일원, 경주일원에 공유경제모델을 실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그동안 법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법으로 취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환각성이 거의 없는 헴프(Hemp)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의료,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의 문을 열기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북 북부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에서는 이미 민선7기 과학산업 전략구상을 통해 백두대간 내 이차 생명산업 벨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한 기업인은 최근 '타다(TADA)' 논란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하여 실증을 해본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의 벨로모빌과 헴프(Hemp)산업화 특구의 경우도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지역실증을 통해 균형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의 관심

도 뜨거웠다. 특히, 대기업 사내 벤처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하여 경북도의 특구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 벤처기업인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컨셉트 모델이 개발된 상태이며 특구지정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헴프(Hemp)산업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법률상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30조가 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하루빨리 특구가 지정되어 세계 헴프(Hemp)시장에 국내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날 박연선 중기부장과 김학도 차관이 참석하여 규제자유특구 사업 담당자들을 격려했으며 각 지자체들 간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배터리특구가 그랬듯이 지역산업 지향도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정책수단이다"면서 "경북도에서는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산업별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사항까지 세심하게 챙겨 기업하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포천시 방문



### 중국의 협력사업 논의-투자환경 모색 중국 정부와 교류 협력 발전 기대

경기 포천시는 최근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표단이 중한 협력사업 논의 및 투자환경 모색을 위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포천시청 시청회의실에서 진행된 회견 자리에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이린 국제협력센터 부처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 7명과 박윤국 포천시청, 조용준 포천시의회 의장, 관내기업인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 산하의 정부 기구로 경제발전 전략과 5개년계획 등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등 중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이린 부처장은 "사드 문제 발생 이후 침체된 한중 양국의 관계가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 하루 빨리 회복되고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박윤국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수도권 북부에 위치한 포천시의 지리적 이점 및 투자환경,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만남이 향후 중국 정부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김영근 기자

## 용인, 여름 자연재난 대책 우수

경기 용인시는 3일 행정안전부의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각 기관의 대비태세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데, 시는 지난해엔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평가는 자연재난대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상황관리체계 구축, 인명보호대책, 재난우려지역 안전대책 수립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재해대책기간 중 실제 대처능력 등을 합산해서 한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등 상습침수구간에 자동차단기 설치·운영,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읍면동까지 연결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 돋보였다.

백근기 시장은 "용인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 안전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앞으로도 자연재난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HSG, 계약이행보증금 MOU 체결 내년 상반기 최종 매각 완료 예정

성동조선해양이 3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이치에스지(HSG) 공공업과 '성동조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20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근로자 6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세 차례의 매각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정상화에 희망이 생길 셈이다.

경상남도도는 순조로운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경남도는 성동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동조선 노조 및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성동조선의 고용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노동



자 생계지원 대책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지원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성동조선 퇴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 3월 이후 성동조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자 고용부 등에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을 꾸준히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번 4차 매각이 진행되기까지 창원지방법원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

해 성동조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왔다.

도는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연말까지 본 계약 절차가 남아 있으나, 노·사·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최종 매각이 성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권단,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성동을 비롯한 중형조선소 정상화로 경남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최만식 기자

## 여주시,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우수상'

### 문제부 주관 '힐링여수야'로 입상 디자인·콘텐츠 등 높게 평가 받아

전남 여주시는 문제부 산하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관한 '제9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블로그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과 공감, 소통하는 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는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200여 개 기관·단체를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등 18개 지표로 평가했다.

여주시는 네이버 블로그 '힐링여수야'를 후보로 등록해 전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힐링여수야'는 관광객과의 소통과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7월 개설됐다.

여수관광 SNS 기자단이 매일 여수의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직접 체험하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는 방식이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고, 블로그 관리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질문에 답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현재 1만 1200명이 이웃으로 등록돼 있고, 지금까지 방문자는 540만 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여수관광의 새도약을 위해 블로그뿐만 아니라 관광안내도 모바일 앱 '아! 여행!', 숙박예약통합시스템 YEOSU야(夜)를 운영 중이고, 음식물가 모바일 앱 '여수맛'도 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연구과제 '최우수상'

### 토지특성 효율적인 개선 방안 제시 우수 시·군, 담당자 표창까지 수상

전남 광양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2019 개별공시지가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개별공시지가 업무 우수 시·군 담당자 표창까지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광양시는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토지특성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적정화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로 민원지적과 박명진 주무관이 발표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개별공시지가 연구발표와 전문 강사의 특강, 감정평가사협회 광주 전남지회장의 사회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관련 업무의 문제점과 감정평가사들이 답변하는 Q & A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군 담당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시·군간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였다.

광양/김영만 기자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를 진행한 후 우수 5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 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광양시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주요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지가 균형을 적정화 확보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광양시는 내년 2월 13일까지 2,740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19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내년 5월 말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거제시, 지역기업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7억 원 확보 자격 조건 부합할 경우 보조금 지원

경남 거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117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확보된 국·도비에 서 부담금을 포함한 133억 원을 지역 내 조선기자재 기업에 지원한다. 이 기업은 총 392억 원을 신규 투자해 신규사업 199명 채용을 추진한다.

이 보조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지원 하는 제도이다.

해 거제시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산업위기에대응특별지역으로 2021년 5월까지 연장 지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비율 24%에 고용인센티브 10%를 포함해 투자금액의 34%의 설비보조금을 지원 받게 됐다.

거제/최만식 기자

업체의 투자내용은 최근 조선수주 물량이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와 고부가가치선 수요증대에 따라 선박건조공법 변화에 발맞춘 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조건은 국내연속 3년 이상 영위,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주력산업, 지역중공업지업종, 투자금액이 1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는 1차로 사업 착공시에 70%를 교부하며 사업 완료시에 30%를 교부 한다.

거제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를 확대해 상시 고용인원을 많이 유발 할 수 있도록 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관외기업을 관내로 유치해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상생발전 비즈니스 모델로 공예산업 미래 모색

### 부산시,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현장 홍보로 폭넓은 관객층과 소통 나서

수도권에 편중된 공예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호남 8개 시도(부산, 광주, 울산, 대구,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8년 만에 부산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부산시공예협동조합(이사장 최종일) 주관으로 '제21회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이 오늘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은 민간부문 동시교류를 통해 영호남 전통공예의 화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공예품 소비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 11월 29일 전수길 부산시공예명장의 도자 향아리 물레 시연을 비롯해 △ 11월 30일 미요시 유미코 하리코 장인의 종이인형 제작 시연 △ 12월 1일 핫타 미호코 하카타전통공예관 부관장의 다도 시연 등 생동감 있는 볼거리를 선사해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내일(29일) 오전 11시부터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과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총영사, 고무라 테츠오 공보문화담당 영사, 마르팡 바이아 주부산알리안스 프랑세즈 원장,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중만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역별 특화된 전시장도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전 팝업스토어에서는 부산시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수한 지역 공예인 및 공예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제2회 부산공예문화상품 전국공모전' 수상작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수상작 본 전시회는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후발 개도국 상품과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생산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장조사, 시장규모 예측, 소비자 기호변화, 상품에 대한 반응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타겟별 고객특성에 맞춘 기획상품 제안 및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국공립 연구소 및 경영·무역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만식 기자



# 김명호 경북도의원, 7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등 대표발의 33건 '도시와 농촌 잇기'로 연 1만 3천여명 농촌길 걸어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최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7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250여개 광역·기초의회 3,500여 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17명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

원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의정활동 9년 5개월 동안 대표발의 33건을 비롯하여 총 147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

2019년 8월에 대표 발의한 '물 관리 기본조례'는 2018년 6월에 제정된 '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 물 순환체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

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2019.3)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받았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의식 복원 및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9년 5개월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등 본회의장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의 창의적 발전으로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낸바 있다.

그리고 경북과 대구 전역을 대구 지방법원 한 개소가 담당하는 기형적 상황이 30년 이상 지속되어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안동지방법원 분리·독립이 긴요함을 주장했다.

그 결과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안동호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도산면과 예안면을 연결하는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할 것을 촉구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했다.

이 밖에도, 2014년에 '도시와 농촌 잇기' '내 고장 순례 걷기모임'이라는 독자적인 모임을 창설한 것은 특기할 만 하다.

해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취지로, '도시와 농촌을 잇자'는 소박한 걷기모임을 만 5년 동안 36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연인원 1만3,000여 명이 450km 이상의 농촌 길을 걸어들었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창의적인 시민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자신의 모태인 농촌과 하나가 되려는 뜻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순례자의 마음으로 농촌돌봄을 결의면서, 지역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목도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대장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사회공동체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의



### '모든 역량 결집 및 전폭적 지원 협조 아끼지 않을 것' 전원 찬성

경기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하고 14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개최되기를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과, 범시민 참여의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체전·체육문화 발전을 앞당기는 문화체전·지역경제가 활

성화 되는 경제체전·평화와 통일 의 상징이 되는 평화체전으로 유치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의 침체된 지역경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인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결의안을 발표한다"고 설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대통합을 이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힘에 보태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파주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사전통지 촉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철저히 시행해야

경기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준 의원은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당부했으며, 공공디자인과에는 현수막 게시대 위치 선정 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적합한 기준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이나 철거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건축물 건축시 설계·시공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시 관내 건설 자재, 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 개선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보정, 동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합SOC사업 신청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남숙 의원은 주택과에 시정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주택 행정업무의 추진과 다수의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오피스텔 허가 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건축허가 사전 예고 제도의 적극인 시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디자인 나눔 프

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남 의원은 주택과에는 고립지구 및 학교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 개선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간판 개선사업 완료 지역은 사업자 변경 시에도 일관성 있는 간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장기 수선 총담금 표준요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 수선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어, 조명, 환경,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옥외광고심의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수원, 방면마스크조례안 추진

경기 수원시의회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장이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면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면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화재대피용 방면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면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김재필 기자

## 안명규 파주시의원 관광 관련 조례 2건 발의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진흥 기대' 관광사업 효율적 추진 장치 마련

경기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 2건을 발의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정책 사업 등의 자문을 담당할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파주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잠재 관

광사업 발굴과 추진에 파주시 관광 관련 사업자·단체 및 시민 등이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근거를 구체화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는 천혜의 여건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만, 관광산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진흥시키고 경제력 수요정출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관광 관련 조례의 부족한 부분의 제·개정을 통해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관광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관광 관련 조례안 2건은 지난달 11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파주/김영근 기자

#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가평군, 가평역~국도75호선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통

### 자라·남이섬 일대 만성적 교통난 해소 기대 역세권 개발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 가평군은 가평역과 국도75호선 구간을 연결하는 가평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2공구 개설공사를 완료해 지난 2일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평역과 자라섬, 남이섬 일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평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개설공사는 국도46호선~가평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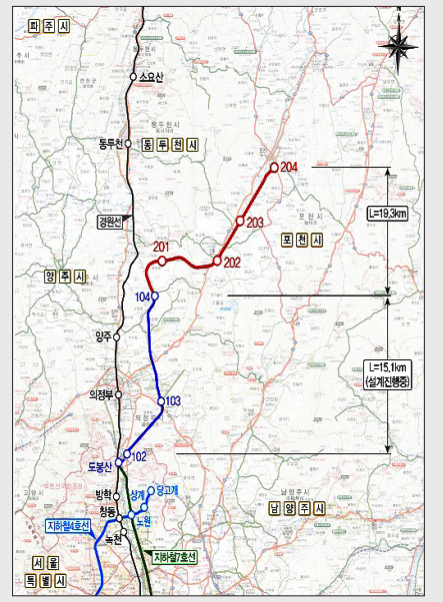
도75호선~달전1리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다. 군은 지난 2015년 95억원을 들여 1공구 구간인 국도46호선~가평역을 연결하는 길이 245m를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가평역~국도75호선을 잇는 길이 721m, 폭 26m 규모의 2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142억원이 투입됐다. 왕복 4차로와 함께 가로수, 가로등, 자전거도로 등 교통안전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성에 만전을 기했다. 군은 현재 3공구 구간인 국도75호선~달전1리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길이 401m를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사업비는 12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공구까지 최종 개통되면 행락철 이일대 교통개선효과와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해소,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공설운동장사거리~제방도로 구간 593m 중로 1-4호선 등 총 사업비 188억여 원을 들여 6개 소 1.5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 교통망을 확충했다. 올해에도 우림아파트~뮤직빌리지 등 6개 읍면 34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가평이동원 기자

# 최대 숙원사업 옥정-포천 전철7호선 연장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할 계획



경기 포천시 최대 숙원사업인 옥정-포천 전철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완료됐다. 서울시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거쳐 포천시까지 연결되는 '도봉산포천선' 노선 중 옥정-포천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정-포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이후 올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전철역은 포천시에 3곳, 양주시에 1곳이 들어서게 된다. 포천시는 총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전철7호선 연장은 포천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철 연장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초기에 착수돼 포천시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근 기자

# 의정부시, 경전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 경량전철(썬)썬우진메트로 합동 정당한 승차권 이용객 보호나서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경전철 회통역에서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의정부경량전철(썬), 썬우진메트로와 합동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정승차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

고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이날 캠페인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정승차 예방 홍보물을 나눠 줌으로써,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한 이용객을 보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여주시, 산관계 농장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

### 관내 10만수 이상 산관계 농장 앞 농장 출입 차량 속도 실시 등 만전

경기 여주시에서는 AI 상시 방역 관리 강화와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관내 10만수 이상 산관계 농장 앞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

하며 농장 출입하는 차량에 소독실시 및 소독필증 확인, 알·계분 반출관리, 농장 인근 철새 관찰 등 AI 발생에 사전 대응 및 타 지역으로의 질병확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거점초소에서 1차 소독, 이동통제초소에서 2차 소독, 농장 내 진입 시 3차 소독에 걸쳐 반복되는 AI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서 이러한 사전 조치로 지난 2년간 고병원성 AI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며 급변 AI 상시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주/남시현 기자

# 하남시, 2019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 민·관 100여 명 참가, 가두행진 벌여 시민에게 홍보물과 리플릿 등도 배부

경기 하남시는 '2019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관을 맞이해 최근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하남시청 여성보육과·하남시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남경찰서·어머니폴리스단 등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소속기관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시민 밀집지역인 신장사거리에서 하남시청까지 "성폭력·가정폭

력 없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가두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소속기관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디지털성범죄,데이트 폭력, 불명예상물 촬영·전달·유통 등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 동참하자는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남시현 기자

# 안산,주요간선도로가로등조도개선

경기 안산시는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기존 방전램프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주요간선도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비 19억원이 투입된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중앙대로 수인로 삼일로 해안로 별망로 등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구형 나트륨 방전램프 가로등 2천414개는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산시 전체 가로등 중 8.25%가 개선됐다. 기존 방전등보다 광효율이 우수한 고효율 LED등은 운전자 시야확보가 우수했다. 에너지 사용량도 기존보다 40% 절감할 수 있어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연간 최대 1억3천만원을 낮추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안산/이승배 기자

# 안성시, 고농도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 나서

### 원인분석·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도농복합도시 특성고려 배출량 파악

경기 안성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의 주재로 한경대학교 정명규 교수, 고려대학교 나자현 교수 등 전문가와 민간 환경단체, 관련 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시는 산업단지, 각종 건설현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이 혼재된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 및 기여도 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됐다. 아울러 외부유입 미세먼지에 대해

서도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대기 중 부유 미생물 분포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문환 안성시 권한대행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성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본 용역이 심도 있

게 수행되어야 한다"며 관계 전문가와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국립 한경대학교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관학협력을 통해 안성 발전에 이바지한다는데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남시현 기자



##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 삼성전자포터블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압축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http://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공사, 시민 눈높이로 살피니 공사품질 ↑ 안전 ↑

## 7월 공식 출범 이후 26개 현장 감리활동...

### 도로·하천·철도·건축 등 총 327건 발견해

“공사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간간하게 확인하고 조언까지 해주니 더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 경기건설’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이재명 도지사의 민

선7기 공약인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7월 8일 위촉식을 갖고 1기 시민감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감리단에는 전공·경력 등을 고려해 뽑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분야 전문능력을 갖춘 시민 20명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30억

원 이상 규모 도 및 도 소속기관 발주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재해 예방, 품질·안전관리,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 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 능력 강화 감리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하남신 복선전철 4공구, 오포-포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 등 총 26개 현장을 살폈으며, 단순 단속차원을 넘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이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로 111건, 하천 99건, 철도 66건, 건축 51건 등 총 327건의 보완사항을 발견,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지도하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실제로 A하천 정비현장에서는 U형 수로 상부에서 추락 우려가 있다고 보아 안전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현장에서는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방호벽 등을 설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B철도 사업현장에서는 공사 특성상 지하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져 가스 누출에 대한 위험 있다고 지적, 현장에서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알람판을 설치해 대비태세를 확립했다.

C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망 보

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한 결과, 훼손된 안전망은 복구하고 계단 난간에 수평보강재를 설치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감리단의 활동방식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 단속과 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 현장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방향까지 세심히 지도해 줌으로써 품질 높은 공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공사를 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도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감리단의 주요 임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감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감리단은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중지된다는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 감리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2020년 3월부터 현장점검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수원/김재일 기자



## 보성군, 톨백저울 중량점검·교정작업 실시



### 농한기 이용 농가마을 보유 400대 농업인의 불편 해소 될 것으로 기대

전남 보성군은 농한기를 이용 관내 마을 및 농가에 보급된 톨백저울 400여 대에 대해 오는 오는 6일까지 권역별로 장소를 지정 중량점검 및 교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전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포대매에서 톨백 매입으로 확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 및 농가보유 톨백저울의 실중량 차이로 공공비축미

곡 매입시 중량 가감에 따른 농가의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보성군 관계자는 교정작업을 실시하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공비축미곡 매입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성지소 이광호 팀장은 중량 차이로 출하 농가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진 보성군에 놀랐다’하면서 앞으로 매입장 분위기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보성/배정민 기자

## 경남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대응 특별대책 시행

### 계절관리제 시행 등 저감 대책 추진 사회재난 지정 따른 대응체계 구축해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등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민감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3대 핵심현장(대기배출, 비산먼지, 불법소각)에 대해 7개월간(19.11. ~ 20. 5.)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드론(13대) 및 민간감시원 활용, 도 및 시·군 합동 점검반 등 다각적 감시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

약을 통한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3개 사업, 191억 원)\*도 확대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분야의 감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삼전포화력 5·6호기 가동을 중단하며, 중단 기간 중 2,000억 원의 예산으로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완료 후에는 삼전포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 시 발전용량의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연료 수급 사정에 따라 상시 상한 제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22개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하여 청소주기를 확대(1회/일→2~4회/일)하고,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1,035개소)의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농촌 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장소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과 특별점검(250개소)을 병행 추진하고, 무더위 쉼터를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을 갖춘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인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이행사항 조치 등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과장은 “계절관리제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운동 등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남/최만식 기자

## 파주, 댐 붕괴 대응 도상훈련 실시



경기 파주시는 최근 군남 댐 붕괴 시 신속한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한강홍수통제소, 연천군, 수자원공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1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임진강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군남댐 붕괴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상황별 임무 수행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댐 붕괴 재난에 대해 대비했다.

김윤희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짧은 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댐 붕괴 등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재난 대비를 진행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 평택항 출입국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진다

### 인원 충원·자동출입국심사대도 설치해 입국심사확인증 발급기 7대 신규 운영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 관련 인력 증가와 시설물 강화로 평택항을 통한 출입국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평택~중국대륙 간 노선이 재취항한 이후부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증가로 출입국 수속 과정이 지연되는 등 터미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해 왔다. 실제 10월 한 달 동안의 터미널 이용객이 9월에 비해 약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유의동 국회의원,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세관·검역·출입국관리 등 CIQ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에 여객터미널의 인력과 시설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인력이 기존 8명에서 10명

으로 증가됐다. 법무부 수문출입국정 직원 2명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파견된 결과다. 향후 평택시 등은 법무부에 요청해 2020년까지 총 12명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던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설치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자동출입국심사대 3대를 설치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12월 중순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인력이 확보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의 설치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해 발생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미널 이용의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정성호·유의동 국회의원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터미널 이용에 만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 과거의 성공이 성적이었다면

#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 파주형 지역사회 관광모델 구축... 관광두레 사업 순항

### 주민들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 생산, 판매 관광객 소비 지역 발전 이어지는 관광생태계 조성



파주관광두레사업이 송영철 파주 관광두레PD를 중심으로 '파주형 지역사회 관광모델 구축'을 순조롭게

레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레저, 기념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광생태계 조성은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두레사업은 2013년 시작해 올해 7년 차를 맞아 2019년 1월 기준 47개 지역에서 190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DMZ Army Cafe DMZ 풀먹은 한우 개성인삼비누 평화오르골 등 4개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다. 지난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체 별 내·부 자원 현황 분석, 핵심사업발굴, 사업성 분석, 실전 세무 및 법인설립 교육 등이 진행됐다.

해당 과정을 통해 DMZ Army Cafe는 군대 문화를 핵심 콘셉트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DMZ Army Cafe 및 편집샵을, DMZ 풀먹은 한우는 DMZ 청정

한우를 핵심으로 한우 전문 레스토랑 식음을 개발하고 있다.

개성인삼비누는 장단삼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비누, 샴푸, 천연화장품 등 지역 기념품 생산을 준비하고 평화 오르골은 평화 소리를 콘셉트로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평화를 기념하는 상품들을 발굴해 본격적으로 창업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각 주민사업체는 선진지견학과 사업 분야별 전문가 세부 멘토링을 통해 작성된 주민사업체별 핵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송영철 파주관광두레PD는 "향후 파주관광두레 주민사업체별로 밀착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성 있는 관광 분야 주민사업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파주형' 지속가능한 관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 광주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토마토 토론회



###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평생학습도시 동반 제막식 등 진행

광주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평생학습 선포식 및 토마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 및 토론회에는 신동원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박원철 시의회 의장, 시의원, 평생학습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평생학습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표창 수여, 평생

학습도시 동반 제막식, 토마토 토론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최한 토마토 토론회는 평생학습기관, 문해교육사, 평생학습마을, 지역강사 등 8개 분야별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원탁토론이 이뤄졌다.

신 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관계자간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남시현 기자

##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최우수

### 환경부장관상 최우수 인증 현판 수상 재활용품 수시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이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강릉시에서 열린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이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인증 현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폐기물처리 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처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시설 등 전국 666곳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기준은 시설운영 실적에 비롯해 폐자원에너지 생산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 환경정보 제공, 주민 편의 창출 등 34개 지표이다.

양주시는 지난 2018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전국 190개소의 재활용선별장 중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1일 20톤의 처리가 가능한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은 선별품목 세분화를 통해 자원의 재이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선별효율 향상에 기여했으며 재활용품 수시 매각 처리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근로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파주,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파주시는 최근 금촌농협 종합청사 및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조리농협에 이어 파주시 관내 두 번째로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원해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 면적 233.3㎡ 규모로 개장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공급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말한다. 이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파주/김영근 기자

## 의정부시, 사회공헌형 CU새싹가게 3호점



###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근무경험 있는 직원들 투입해 운영

㈜BGF리테일의 사회공헌형 매장인 CU새싹가게 3호점이 최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의정부지역자활센터는 올해 1월부터 CU새싹가게 1호점과 7월에 2호점을 개점한 바 있으며 이번 3호점 개점을 위해 1, 2호점의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투입해 무리없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3호점 근무자 박 모 씨는 "CU새싹가게는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

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에 편의점 창업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터전이다"며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배우면서 CU 가맹점 사장님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장은 "1호점과 2호점 그리고 3호점까지 개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CU새싹가게 편의점이 잘 정착되어 고용과 창업의 발판이 되도록 의정부시와 의정부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스마트시티 수원', 어떻게 만들어갈까?

### 교통·전통시장·취약계층 안전 등 '토크 콘서트·리빙랩' 성과공유회



수원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토크 콘서트·리빙랩 성과 공유회'를 연다.

수원시·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1부 스마트시티 토크 콘서트와 단국

대·디코리아가 주최하는 2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로 진행된다. 성과공유회는 SAP코리아가 후원한다.

토크콘서트는 박원호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스마트시티 국가정책 방향' 소개,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된다.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지난 9월부터 교통·전통시장·취약계층·안전 등 4개 분야에서 발굴·개발한 성과를 발표한다.

행공동의 스마트한 여정, 수원천 따라 전통시장까지, 전통시장 알리미 정보제공 시스템, 자나깨나 너나들이 프로젝트, 365일 안전한 SPM 등 5개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무료 행사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스마트 시티 수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안산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 60여 명 참석 '평행.이론' 주제 다른 기관 실무자들과 소통 이뤄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안산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부분 베르야벨 스타클럽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 등의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평행.이론'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평행線'은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를 뜻하는 '라포' 형성과 네트워크파트너로 서로를 알아가고 사이 좋은 인적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평행先'은 '액션러닝'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사례발표 및 이슈공유, 협력방안 모색의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세 번째 '평행宜'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위한 고민, 논의 결과 발표, 액션러닝을 통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술습득을 목표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실무자는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서로 소통하며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각 분야별 이슈와 어려운 점들을 알고 함께 해결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리영 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이 모여 현장 속 이슈를 공유할 수 있었고 현업으로 돌아가서도 액션러닝 회의기법을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 곳곳서 제설봉사단 발대식

### 눈치우기로 마을사랑 실천 앞장 겨울철 시민불편을 최소화 나서

고양시 일산서구의 여러 동에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설계획을 세우는 등, 겨울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난 26일 발대식을 개최한 탄현동 제설봉사단은 인도 및 이면도로 관리 등 철저한 겨울철 제설 사전 대비로 재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할 것임을 약속하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고양시민의 눈 치우기는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폭설 시 눈 치우기 봉사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다.

고양/김영근 기자

## 오산시 '유잡스' 청년 취·창업 지원한다

### 만 18~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예비창업자 20여 명 대상 운영

오산시는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에서 지난 20일부터 만 18~39세 오산시 청년 구직자, 예비창업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목요일마다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완성, 실전 모의면접, 창업 마케팅, 노무 및 세무 관리, 창업 펀딩 등 실전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기를 익히는 방법부

터 실습, 전문 강사의 1대1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교육을 수강 중인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 교육 담당자는 "기존의 취업 특강과는 다르게 전문 컨설턴트의 피드백을 바로 받아들 수 있어 참여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취·창업의 기본기와 수강생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자신감과 실무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용범 기자

## 용인,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730명 모집

###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 등 131억 투입 지난해보다 157명 늘어

용인시는 내년 관내 12개 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3,730명의 어르신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경비 등 업무능력이 있는 참여자를 민간 업체에 연결해주는 취업알선형엔 만 60세 이상 100명을 모집한다.

만65세 이상 390명을 모집하는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서 환경정비나 급식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월 60~66시간 근무에 70만원가량 받는다.

시는 이 가운데 공익형과 시장형 참가자 3,240명을 오는 6일 우선 모집한다. 사회서비스형과 취업알선형은 내년 1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공익형 일자리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900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10~12개월 동안 홀로어르신 생활안전을 돕는 '노노케어'를 비롯해 거리 청소, 공공시설 관리 등 40여개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며 월 30시간 근무에 27만원을 받는다. 시장형 일자리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340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공동작업장에서 종이봉투를 만들거나

용인/남시현 기자



# 오산 독산성에서 삼국시대 원성벽 최초 확인

### 복원성벽 아래 묻혀있던 삼국~조선시대 성벽 발견 협축방식·편축방식 이용, 지형 따라 축조기법 달라

오산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중부고고연구소와 한신대학교박물관이 조사 중인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학술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성곽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독산성 북동지 및 북문지 주변 성곽 일부에서 배부름 및 이탈 현상 등이 확인되어 성곽 보수·정비에 앞서 복원성벽 아래 숨겨진 원성벽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확인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복원성벽 아래에 묻혀있던 삼국~조선시대 성벽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삼국시대 성벽은 조선시대 성벽 아래에서 확인됐고 내벽과 외벽을 함께 쌓는 협축방식과 외벽만 쌓는 편축방식을 모두 이용해 지형에 따라 축조기법을 달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벽은 대체로 장방형 혹은 방형의 성돌을 이용해 바른층 쌓기

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세장방형의 성돌을 이용해 쌓은 것으로 볼 때 수차례 고쳐 쌓은 것으로 파악된다.

외벽의 바깥쪽으로는 체성벽 하단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단보축을 조성하고 이에 덧붙여 점토를 다시 보강하기도 했다. 내벽은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됐고 높이는 약 4m이다. 내벽은 외벽과 달리 가공하지 않은 활석을 이용해 층을 맞추어 쌓아올렸다.

조선시대 성벽은 삼국~통일신라시대 성벽의 적심부 상면에 쌓아올렸으며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북문 아래층에서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문지와 적대 등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성 안쪽 내탁부에서는 상부에 여장이 확인됐고 성 안쪽을 보다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조성한 계단식 석축시설은 종·횡방향으로 쌓았다.

유물은 삼국~통일신라시대 토·도기편, 연화문 와당, 승문, 선문 및 격



자문계 기와편, 고려시대 청자편·반구병, 조선시대 도기편·백자편·다양한 문양의 기와편·전돌편 등이 출토됐다. 유적의 연대는 성벽 축조기법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독산성에서 삼국시대 성벽이 처음 확인되어 독산성의 초축시기 및 수축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됐다"며 "서울·경기 지역의 관방체계와 산성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산/김용범 기자

## 의정부시,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장암역 교차로~노강서원 약 1km  
9억 원 들여 하폭 10m~16m 넓혀

의정부시가 최근 장암동 내 소하천인 장암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장암역 교차로에서 노강서원 앞까지 약 1km이다.

시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사비 약 19억 원을 들여 장암천의 하폭을 10m~16m로 넓혔고 호안을 자연석과 조경석으로 정비했으며 콘크리트포장으로 제방도로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 등 불법 무단 점용 시설이 철거되어 장암천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천 시 수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산책로 및 친수 시설 설치 등, 노강서원 주변의 여가복지 조성사업을 착공해 장암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장은 "수해예방 차원을 넘어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힐링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파주시, 연말연시 지역화폐 특별할인 실시

겨울철 맞아 지역 소상공인에게  
10%할인... 화폐 따뜻함 전달해

파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화폐인 '파주Pay'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파가 시작되는 겨울을 맞이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지역화폐의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평소 6%의 할인으로 판매되는 지역화폐를 특별할인 기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월 최대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하다.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연회비·실적 조건도 필요 없어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를 등록, 개인계좌 연결, 충전 및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파주시 전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곳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폐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발급, 충전, 사용이 가능하다.

신동주 파주시 지역공동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발행목표를 상회했다"며 "사용자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은 매출 올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파주Pay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 양주시, 섬유패션육성사업 기업지원 성과발표회



염색공정서 발생하는 불량 해결 사례  
향후 연구개발사업 주요방향 등 소개

양주시는 최근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주관으로 '2019 양주시 섬유패션육성사업 기업지원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이희창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섬유기업 임직원과 사업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회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수행 기업지원 사업성과, R&D 사업 주요 실적, 2020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어 섬유기업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시는 매년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섬유기업 현장기술동반이 지원 사업, 명품니트 육성사업, R&D역량

개발사업, 소공인지원센터 사업 지원 등 섬유기업의 역량강화와 기술 지원, 활력제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 애로사항 해결부터 R&D 지원, 개발원단의 의류 시제품 제작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들의 성장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염색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해결사례, 의류제품에서 발견되는 유해물질 분석지원, 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참여 성과를 비롯한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방향 등을 소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대순 부시장은 "양주시 제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최근 많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변성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은 "오늘 성과발표회에서 나온 의견과 수요들을 반영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섬유기업 지원에 힘을 쏟겠다"라며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광명시,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광명시는 최근 KTX광명역 웨딩홀에서 '2019년 광명시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 자율방재단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시 자율방재단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구필회 광명시 자율방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상 관측이래 최대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했다.

특히 태풍 '링링'은 간판, 가로수와 비닐하우스 파손 등 많은 피해를 줬다.

한 마음이 되어 봉사에 임해주신 대원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모든 대원이 힘을 모아 방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자연 재해가 많은 한해였지만 자율방재단원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태풍때마다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예찰과 응급 대처에 힘써주시고 특히 지난 링링 태풍 때 전 대원이 합심하여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 작업을 신속히 해주시는 등 봉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 포천시, '2019 포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시립도서관 장서개발 지침 심의·의결  
내년 주요사업계획 심도 깊게 논의해

포천시가 최근 '2019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관내 도서관의 2019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2020년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2019년에 전명 개정된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도서관 시설 대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포천시립도서관 장서개발 지침'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는 박정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박해욱 운영위원은 "포천시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생활SOC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폭넓게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근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피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넌다**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캠페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경북도 관광기념품 3점 전국에서 인정받아

##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서 수상 영예 금상 송영철 '신라의 소리' 장려상 김기득, 손소희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경북의 관광기념품 3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23점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종 심사결과 금상(국무총리상)에는 송영철(오을도예연구소)씨의 '신라의 소리'가, 장려상(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에는 김기득(청광요)씨의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관광기념품'이, 지역특별상(한국관광공사이사장상)에는 손소희(하나상점)씨의 '아이 러브 경북'이 선정됐다.

'우리나라, 우리고장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념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해 우수작 선정평가 및 상훈결정평가 등 5단계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11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출품작 총 30점을 선정하여 최종 발표 했다.

영예의 금상을 차지한 영천시 송영철(오을도예연구소)씨의 '신라의 소리'는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 유물인 기마인물형토기, 서수형 토기, 오리형 토기 등을 토대로 오르골과 머그컵으로 제작하였고, 성덕대왕신종, 첨성대 등으로 아로마캡슐과 향합을 제작하여 신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장려상에는 국보 제31호 첨성대를

도자기에 접목하여 첨성대를 연상케 하는 커피 핸드드립세트, 머그컵, 소주잔을 제작한 경주시 김기득(청광요)씨의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관광기념품'이 차지했다.

지역특별상은 경북에서 피어나는 사과꽃, 연꽃, 벚꽃 등을 주제로 하여 브로치, 귀걸이, 배지, 머리핀 등 장신구로 표현한 경주시 손소희(하나상점)씨의 '아이 러브 경북'이 선정됐다.

금상에는 시상금 500만 원이, 장려상에는 시상금 50만 원이 주어지며, 입상특정으로 '한국관광기념품' 브랜드 로고사용권 부여, 한국관광공사 해외 코리아센터 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자격부여 등이 주어진다.

앞으로 경북도는 공모전 수상작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수도권 지역 대형 기념품전시관 입점 지원, 지역 대표 축제장 및 각종 박람회 부스운영 전시·판매 지원, 경주 황리단길·포항 포라카이 해변 등 지역 중심거리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등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집중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유통·홍보 지원을 통해 경북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2일 14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라운지에 전시한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들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북도 관광기념품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

다"며 "경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누구나 구매하고 싶은 경북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평생교육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족 행복플랜



### 봉화군, 주민강좌 가족행복교실 수료 20여 명 참석 가족과 소통하기 조성

봉화군에서는 최근 청소년센터에서 수강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행복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가족행복교실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와 교양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는 Mc고박사(고주환)가 사회를 맡아 수강생 간

친목을 다지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업을 마친 수강생 대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웃음치료, 건강, 생활 속 경제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된 유익한 과정이었으며, 특히 가족사랑 티셔츠 만들기, 푸드테라피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중학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족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강좌를 확대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 영주시, 선비 식치(食治) 학술대회 성료

### 이석간 경험방 음식 복원 전시 '식치콘텐츠' 가능성 확인 받아

영주시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민루 건립기념과 이석간 경험방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2019 선비 식치(食治) 학술대회·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태백이 만나는 3도 접경 지역인 영주의 다양한 약용식물과 풍부한 식재료로 인해 조선 초기 중앙정부의 의료정책과 맞물려 설치된 최초의 의국 제민루(태종 18년 1418년)에서 이루어진 이석간 경험방의 음식 복원 및 전시를 통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가사연 발죽, 흑임자미음죽, 대추씨죽 등 식치음식 20종 전시와 동아약주, 동아장아찌, 수정냉도회 외 3종의 시식회가 진행되어 500여 명의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학술대회는 경인교육대학교 김호교수의 '제민루 의국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대학교 강구을 교수 '이석간 대약부 의약론속 선비사상' ▲한국한의약연구원 안상우 교수 '한의고전문헌과 전통식치' ▲영주시치원 신성미원장 '맛과 치료 식치의서 이석간 경험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석간 경험방

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호 교수는 "각 지역 의국들이 있으며 중앙에서 관리하기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이익을 따지기 전에 지역기반과 행정, 시민 등 여러 방면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용 교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의국활동은 선비정신의 바탕에 있다. 선비정신을 식치에 잘 융합시키면 영주시만의 독자적 아티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미 원장은 "과거 음식을 재현하는데 한의학적 용어가 많고 조리서만큼 상세한 레시피가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영주 식치 콘텐츠를 식치원이 중심이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교수는 "식치의 영역이 매우 모호해 보이지만 한의학과 일상 음식의 연계가 되어 음식치료의 데이터를 모아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발전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분야이며, 향후 이런 학술대회가 지속되고 관심을 가져 식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총평을 내렸다.

영주/정승초 기자

## 영주시 하망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 주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지역 공공기관 최초 BF 인증 획득

영주시 하망동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최근 하망동 신청사 앞마당에서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망동 개청을 알렸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의식행사에 이어 테이프커팅, 신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개청식 식전공연은 하망동풍물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스포츠댄스, 벨리댄스, 민요팀으로 구성된 하망동 주민자치동아리팀의 공연과 지역가수 권용의 축하무대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신청사 개청을 발판삼아 더욱 번영하는 하망동 그리고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공사가기간동안 불편함을 감내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망동 구청사는 1991년 건축되어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해 주민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일환인 신청사 건축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989㎡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에는 민원실과 상담실, 소회의실이 2층에는 주민자치위원실을 포함해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이 배치됐다.

영주/정승초 기자

## 문경, 여성농업인대회성황리개최

한국여성농업인문경시연합회는 여성농업인 자부심 고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문경시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농촌의 희망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회원들 간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 마련 및 자기전파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성농업인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채서운 사업부회장이 도지사 표창패를 수상했으며 영순면 신남순, 마성면 조원숙, 점촌협의회 최윤녀 회원이 문경시장 감사패를, 상양면 안미영 회원이 문경시의회 의장 감사패를, 문경읍 이홍욱 회원이 NH농협은행문경시지부장 감사패를 각각 수상했다.

문경/정승초 기자

## 대구에서 경북의 매력적인 관광지 선보여

### 경북도 대구커피&카페박람회 참가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이벤트

경북도는 지난 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9회 대구커피&카페박람회에 참가하여 경북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대구커피&카페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150여개업체, 400여부스)로 개최되어, 국내외 커피와 카페 관련 비즈니스 전시관과 대구커피역사관, 커피 체험관 등 다채로운 전시체험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학생바리스타대회, 월드커피컵타일챔피언십, 대구커피챗업인협회 로스팅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흥미와 재미를 돋우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커피&카페박람회 이미지와 어우러지게 관광홍보관을 아늑하고 멋스러운 카페 분위기로 연출하여, 시군의 대표 카페와 카페골목, 해맞이 명소 등 경북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이외에도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어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최근, 경북에서는 각 시군을 대표하는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의 주요 메뉴, 위치, 운영시간 등의 내용과 사진, 가까운 관광지 정보를 담은 '경북카페지도(가칭)'를 제작하고 있으며 12월 중 도내 관광안내소 및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커피의 도시,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구커피&카페박람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북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경북에도 맛있는 커피와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 올 겨울 경북을 방문하여 맛있는 커피를 즐기면서 경북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주)다스, 국책과제 컨소시엄 하반기 워크숍

### '자율주행차 적용 가능 지능형 시트' 4개 세부별 진행상황과 전시품 살펴

(주)다스 연구개발본부는 정부 지원과제로 진행 중인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2019년 하반기 워크숍을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시작한 이번 국책과제 연구의 1차년도 개발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세부별 진행상황 보고와 전시품을 둘러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부 지원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한 12개 기업, 6개 연구기관, 4개 대학 등 컨소시엄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 개막식에서 송현섭 다스 사장은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지능형 스마트시트를 개발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연구능

력을 결집해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시트 개발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로테이션 지능형 시트 개발'이다.

컨소시엄은 (주)다스·광명산업·현대공업·두울 등 12개 기업과 고등기술연구원·한국섬유소재연구원·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경희대·동국대·부산대·서강대 등 4개 대학으로 구성됐다.

(주)다스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9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패키지)'의 국책연구 대상자로 선정돼, 전체 컨소시엄을 총괄 주관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로테이션 지능형 시트 개발'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2019~2021년) 3년, 2단계(2022~2023년) 2년 등 총 5년이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장애인보조기기서비스의 중심으로 우뚝

### 보조기기센터 개소로 서비스 확대 경북도, 내·외부 전시장 등 구성돼

경북도는 최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점자도서관에서 장애특성에 적합한 개발된 보조기기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경북도 보조기기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장, 대구대학교 총장,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한 경북도 보조기기센터는 2019년 8월 공개모집을 실시해 최종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경북도가 국비 1억5,300만 원, 도비 1억5,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구대학교 내 점자도서관 1층에 위치한 경북도 보조기기센터는 총면

적 342㎡(약100평)로 보조기기 전시와 체험을 위한 내·외부 전시장, 상담실, 기초평가실, 개조제작실, 3D프린터실,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으로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정보제공,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개조, 보조기기 체험 및 대여,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 지역적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탐차를 이용한 지역 순회 방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장애인도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도 보조기기센터가 장애 수요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남도,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사업단 개소식 개최

###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제품상용화 지원·인재양성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경남도는 3일(재)경남테크노파크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경남도, 창원시, 산·학·연 정보통신기술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경남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단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경남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경남도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도내 산학연 정보통신기술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소프트웨어융합 제품 개발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대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2023년까지 총 2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사업 첫해인 2019년의 경우 제품상용화과제 13건 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도내 기업 파견(애니토이, 위미르 등 4개사, 계약상담액 668만 달러·수출계약 120만 달러 성사 등), 토크콘서트 개최, 해카톤\*대회 참가지원(창원대, 경남대, 창신대 5개팀 참가), 소프트웨어캡처 개최 등의 성과를 냈다.

\* 해카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예 : 42.195시간)과 장소에서 코딩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협업 행사

경남도와 사업단은 올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에는 지역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의 과제 수행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데이터 기반 신사업 서비스 모델 육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공장로의 전환사태에서 알 수 있듯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혁신은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필수조건"이라며, "경남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대중소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최만식 기자

## 경남공중대학 33명 수료, 핵심농업인 양성

### 에이텍 영상교육장서 수료식 열려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자긍심 고취

경남도가 공중산업 발전 핵심 경영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 '2019 경남공중대학 수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 에이텍(ATEC) 영상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경남공중대학 농업인 33명이 참석하여 교육기간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해온 시간들을 되짚었다.

경남공중대학 입학생 40명 중 이번에 수료한 33명 교육생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룬 61시간, 현장 43시간으로 총 104시간을 이수하여 수료증서가 전달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 기간 중 헌신적으로 봉사한 학생장 김영주(함양)씨와 강용규(김해)씨가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추진된 교육과정은 공중사육의 과학영농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중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품질 공중생산과 유통기술, 공중을 활용한 6차산업 사례 등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3기 경남공중대학에 참석하여 교육소감을 발표한 김영주 학생장은 "농산업 개방화시대 대응 틈새 소득작목인 공중을 활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공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달연 경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수료증을 전수하고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식용공중 전문 유통업체 육성 등 다양하게 공중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3기 수료생 모두 공중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 공중산업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첫 개강을 시작으로 공중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까지 95명을 배출하였다.

경남/최만식 기자

## 함양산삼엑스포조직위, 학생 체험학습 유치

### 도내 학교장·교감 회의서 직접 홍보해 학생 현장체험프로그램 등 적극 알려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내년에 있을 2020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의 단체관람객 유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학교 학생단체 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엑스포조직위는 2020학년도 학사 일정 수립 시기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일 경남고성 교육지원청 학교장 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경남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학교장 및 교감 회의·워크숍을 직접 찾아 엑스포 홍보활동을 했다. 경남도 내 교장·교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유치 활동은 산삼엑스포 소개부터 엑스포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학교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직위는 산삼엑스포 체험프로그램을 학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자유학년제 등 내년 2학기 학사일정에 반영해 많은 학생들이 엑스포행사를 통해 향노화 산삼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장순천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함양산삼엑스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유년시절부터 심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남도내 학교에 이어 12월부터는 대구시, 전라도 등 인근 권역 학교를 대상으로 산삼엑스포 홍보 및 현장체험프로그램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0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는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함양 삼립공원 일원과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경남/최만식 기자

## 2019년 부산광역시의 최고 장인을 소개합니다!

### 요리 이경희, 제과제빵 김문국 등 시, 숙련기술인의 날 인증서 수여

부산시는 '2019년 부산광역시최고장인'으로 요리직종 이경희 대표 등 7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며 지역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실력과 덕망을 갖춘 숙련기술자 중에서 산업기술발전이 크게 기여한 우수 기능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최고장인'은 기계설계 등 36개 분야 90개 직종에서 선정하며, 공예 분야 7개 직종은 별도로 선정한다.

올해 부산시 최고장인은 △ 요리직종 이경희 이경희손맛 대표 △ 제과제빵직종 김문국 파밀리아제과점 대표 △ 자동차정비직종 황성일 기아자동차 부산서비스센터 기술선임 △ 한복생산지종 이덕순 한국복식연구소 대표 △ 미용직종 양철기 유립프로헤어 대표 △ 건축시공직종 박건훈 인덕건축 인테리어팀장 △ 기

계정비직종 김영진 한국특수형강(주) 계장 등 7명이 선정됐다.

먼저, △ 요리직종 이경희 대표는 전통음식과 궁중음식, 저염 김치 레시피 개발에 두각을 보여 대한민국 명장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과제빵직종 김문국 대표는 천연발효종 제빵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 자동차정비직종 황성일 선임은 이론과 기술 모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 한복생산지종 이덕순 대표도 전통복식복원 공적을 인정받고, 특히 현장실사 시 주저 없이 숙련된 기술을 선보여 최고장인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미용직종 양철기 대표는 짧은 올림머리의 독창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후진양성과 재능기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건축시공직종 박건훈 팀장은 풍부한 건축시공 경험과 기술의 소유자로 최고 장인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을 △ 기계정비직종 김영진 계장도 끊임없는 품질·공정개선 노력

과 동료들의 두터운 신망과 등으로 당연히 기계정비 최고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모를 통해 8개 직종 12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해 1차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차 현지실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최고장인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고장인 7명을 최종 선정했다.

최고장인에게는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칭호를 부여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개발장려금 1,000만원(연 500만 원씩 2년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서는 오는 12월 23일 숙련기술인의 날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이수일 일자리창업과장은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은 숙련기술인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공지와 자부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숙련기술인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 통영, 배달강좌 '당동강좌' 호응 커

통영시는 최근 대원식품 굴 박신장 종사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당동강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당동강좌는 행정적 교육수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굴 박신장, 시장 등을 방문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시민이 필요한 강의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강좌이다.

이번 당동강좌는 굴 박신장 현장에서 스트레칭, 웃음, 건강이 어려운 진 건강웃음체조로 진행됐으며 한달간 주1회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범추진 후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발굴, 보완할 점, 대상지 발굴 등 자료를 수집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바쁜 생업의 현장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체조 등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려는 사라지고 건강강화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참여한 종사원들은 "쭉쭉 뻗고 돌리 몸도 풀려주고 좋는데 이런 강의는 매일 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통영/최만식 기자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

# 이리오너라, 먹고놀자

운영시간 : 매주 금·토 오후 6시~10시  
남원 공설시장내 (남원시 의총로 51)  
문의전화 : 063-625-4010



# 바다의 슈퍼푸드, 완도산 해조류를 먹어야 하는 이유

### 미네랄·식이섬유·비타민·칼슘·철분 등 영양소 풍부 효능과 가치 재조명돼 큰 관심 불러일으키고 있어

완도는 바다의 슈퍼 푸드라 불리는 미역과 다시마, 톳, 김, 매생이 등을 생산하는 해조류의 본고장이다. 해조류는 한때 바다의 잡초 정도로만 취급됐지만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철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효능과 가치가 재조명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프랑스 일간지인 르몽드에서는 지난 7월, 전남 완도를 방문해 김과 다시마 양식장을 취재했고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해조류를 미래 먹거리로 꼽았다.

완도군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조류를 통해 해소하고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해 '몸속 미세먼지 배출에 효능이 있는 해조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지미, 김정선 박사팀에서 해조류 섭취가 대장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시마와 미역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42%, 1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조류를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장내 미생물은 비만과 같은 질환은 물론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장이 건강하려면 해조류를 섭취해야 한다.

바다의 슈퍼 푸드, 해조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에서는 전국 생산량 대비 톳은 40%, 미역은 52%, 매생이는 60%, 다시마는 80%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완도는 전 해역이 생리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고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어 해조류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영양도 가득하다.

톳은 무기질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미역은 칼슘, 칼륨, 철, 요오드 등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

매생이는 청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식품으로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나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300곳이 넘는 어가에서 매생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시실 예상량은 14,705척으로 12월 말에 채취할 예정이다. 다시마는 알긴산과 요오드, 칼슘, 비타민C 등이 풍부하다. 알긴산은 장 연동운동을 원활하게 해 숙변 제거 및 대장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와 담석증, 갑상선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저칼로리 다이어

트 식품으로도 꼽힌다. 뿐만 아니라 감태, 잔가시모자반, 우뚝가사리 등도 효능이 밝혀지면서 완도군에서는 이를 활용한 기능성 물질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조류는 종류도 다양하고 조리법도 다양하므로 평생식 식단을 구성할 때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꼭 넣어 가족 입맛도 잡고 건강도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양영률 기자

##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선정

음식물쓰레기 줄여 처리비도 절감  
인센티브도 받는 1석2조... 6개소

목포시가 2019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6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감량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26개소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 까지 7개월 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한 세대 당 최대 7%의 감량실적을 거둔 옥암한국아파트가 최우수, 연산주공 1단지과 상

동호반리젠시빌은 우수아파트에, 산정현대산업, 부영2단지, 옥암주공1단지 등 3곳은 장려아파트에 선정됐다.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6개소에 대해서는 시장표창과 함께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먹을 만큼만 식재료 구입, 남기지 않을 만큼만 음식 주문, 남은 음식 포장해서 가져가기 등 우리 스스로 가정과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김민국 기자

## 장흥군,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성황

귀농인·지역민 소통과 융화 기회  
사기진작과 격려, 프로그램 진행

장흥군은 최근 군실내체육관에서 장흥군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귀농·귀촌인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지역융화를 위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마음대회 추진위원회의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식, 난타 및 한춤 공연,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화합과 인구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대덕읍 김종인 외 4명이 표창패를 받았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현지 지역민과의 상생과 화합을 통해 어려운 농어업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장흥군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추진위원장은 "귀농·귀촌인들의 화합을 위한 첫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앞으로 지역주민간의 융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정길 기자

## 보성군, 2019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높은 평가 받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보성군은 2019년 한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농정업무 종합평가 부문에서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이며 보성군의 농정분야의 위상을 드높인 수상이다. 전남도 주관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현안에 대한 평가를 총 6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배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업농촌 활성화 분야 5개 항목, 친환경농업 추진분야 5개 항목,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 분야 5개 항목,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 분야 6개 항목,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강화 분야 7개 항목, 신규시책 개발 분야 2개 항목에서 평가를 했다.

특히 보성군은 농업농촌 활성화 분야에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분야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녹색축산농장 지정사업,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정정보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도정방향 및 목표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발맞춰 가고 있다.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강화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방어 태세를 유지해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보성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할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농업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발맞춰 나가기 위해 대외적 농업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특색을 고려해, 내년도 농업사업분야 각종 신규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을 지원해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성/배정민 기자

## 장흥보건소, 아토피천식예방 교육

장흥군보건소는 11월 한 달간 아토피 천식을 예방을 위한 식품 첨가물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선정된 9개 기관 246명의 학생 및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 바로 알고 올바른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천식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인해 아토피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는지, 첨가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식용색소인 타르색소와 코치닐 색소의 비밀, 식용색소와 천연색소의 차이, 첨가물을 이용한 딸기우유 만들기, 알레르기 질환에 좋은 음식 색깔로 찾아보기를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토피 천식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 해남군, 로컬푸드 안정 공급체계 구축 교육

농가 적극 참여로 농업 기반 마련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앞두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한다.

해남군은 오는 20일까지 해남군 2030 푸드플랜 기반 조성을 위한 참여농가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완주로컬푸드 성공신화를 이끌었던 안대성 대표와 이육근 전 완주 은고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해남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중 교육은 소규모 이중하우스 사업 농가와 해남읍, 삼산, 화산, 현산, 옥천, 계곡, 마산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 1~2월에는 송지, 북평, 화원 등지에서 추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해남군 로컬푸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기본 작부체계와 연간 출하 계획을 세워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획생산 계획서 등을 작성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집합교육 외에도 마을 및 농가 방문교육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가족·고령농들이 차질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계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농가와 고령농, 가족농 등 소규모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농가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기틀이 될 푸드플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강영호 기자

## 영광사랑상품권 구입, 최대 5만원 더 드려요



설 명절 10% 특별 할인판매 실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에서 판매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특별 할인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설 명절 전담과 설 명절이 속한 달로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관내 31개소 전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

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해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발행된 영광사랑상품권은 생활밀착형 가맹점인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약국 등 1,800여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해 지난 11월 1일 발행된 영광사랑카드는 가맹점과 관계 없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영광/김영만 기자

서울시와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농업, 농촌 자원 발굴 나서

영암군은 서울시와 함께 조성하는 영암 서울농장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영암 서울농장 지역 자원 발굴 해커톤' 행사를 최근 영암군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와 영암군귀농귀촌협회가 주최하고 공공미디어협동조합 주관으로 영암군 관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암을 부탁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영암 서울농장이 전남권을 대표하는 도농교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체험,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도시청년과 지역의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암군 거주 청년과 전국에서 온 청년들이 7명의 농업농촌/지역재생 전문가들과 각각 7개의 팀을 이뤄 영암 11개 읍면을 제공된 차량으로 자유롭게 탐방하며 새로운 농업, 농촌 자원을 발굴하고 해커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2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중의 센터장의 기초강연으로 시작된 첫날 일정은 타 지역 참가자 10여 명과 영암지역 4H 청년, 청년창업농, 마을기업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모여 네트워크 파티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멘토와 3인의 팀원으로 구성된 7개의 팀들이 주최측에서 제공한 승용차량을 인계받아 각자 주제에 맞는 권역별로 골고루 나누어 권역체험마을 관계자 심층인터뷰, 농산물 생산/유통지 탐방, 문화재/관광자원 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방이 진행됐으며 팀당 평균 10개소 이상 현장 답사가 이뤄졌다.

셋째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해커톤 발표에는 전문심사위원단이 참가해 7개 팀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수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결과 '계층별/계절별/테마별 체험코스 개발'과 '비행장-F1경기장-수상스포츠'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한 소공자팀, 정현철, 이형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정면 대봉 탐방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구성한 '대봉토티'팀과 마을공동체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구림을 품은 달'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소공자팀의 이형준 씨는 "영암을 처음 왔지만 매우 훌륭한 자연, 문화, 체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행정이 적극적인 투자자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한다"며 열정적인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해커톤에 팀원으로 참가한 김기수 군은 "영암지역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 영암을 조금씩 바꿔 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영암/이경화 기자





# 수달, 전주 생태동물원의 마스코트 됐다

### 관람객과 동물이 행복한 생태동물원 탈바꿈 '생태동물원 BI 및 캐릭터 선포식'서 공개해



전주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 수달이 관람객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됐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동물원 잔디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위원, 어린이,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동물원 BI 및 캐릭터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주동물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BI와 대표캐릭터 수달을 공개했다.

하버드유치원생들의 동요 및 율동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주동물원장의 BI 및 캐릭터 개발 경과보고 전주시장의 기립사, 주요내빈들의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전주동물원 BI에 생태동물원으로 변화중인 전주동물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숲과 자연을 의미하는 녹색을 동물원의 상징 색으로 표현했으며 동물복지와 생태환경 변화의 의미를 담았다. 또,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읽히는 디자인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전주동물원의 브랜드 가치를 표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동물원의 대표동물인 수달의 캐릭터 디자인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수달은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수환경지표종으로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의 정체성과 어울려 새로운 마스코트가 됐다. 전주동물원 야외방사장에는 과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방사가 불가해 전주동물원으로 이주된 2마리의 수달 '수수'와 '달달'이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을 통해 큰물새장 사자·호랑이사 늑대사 곰사 조식동물의 숲 등 전주동물원에 서식중인 다양한 동물의 보급자리를 자연서식지와 유사하게 조성해왔다.

현재는 전주동물원에서 생활하는 호랑이와 원숭이에게 새로운 보급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베리아호랑이사과 원숭이사 신축공사를 진행중으로 올 연말 준공후 내년부터는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생태동물원이 새로운 BI와 캐릭터 선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주동물원을 단순한 전시 중심의 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이 주인공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동물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승일 기자

# 정현복 시장, 남해안남중권 상생발전 머리 맞대



우수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등 연계관광,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추진

시·군 행정협의체인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15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2020년 공동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 석 순천시장, 송기근 고흥군수,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임정주 보성군 자치행정국장 등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안건은 남중권 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의 건 제2관공공항 남중권 유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의 건 2020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협의회 임원 선출의 건 등이다.

정기회 결과에 따른 내년도 사업 예산은 약 5억8,000여만 원으로 남중권 우수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영, 주민생활 밀접분야 합동점검, 문화예술·체육 교류전 등 총 10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광양~하동 화합의 인도교 설치사업 남해안 휴게소 조성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등 시·군 공동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공동건의하고 일부 사업은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등 성과로 남았다.

특히 현 섬진강휴게소를 확장하는 남해안 휴게소 조성사업은 취약했던

남해안권 대중교통 연계망을 대폭 개선시켜 앞으로 남해안권 광역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에 맞춘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 반영과 협력사업의 실현을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며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콘텐츠의 힘과 신성장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지난 2011년 5월 창립된 이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영안 기자

# 장흥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 '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평가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농촌지역 자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접근을 차단해 중독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장흥군 3개 읍·면, 12개 마을 510 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장흥군은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보관함 사용 점검 및 우울증 선별검사, 자살예방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을별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회는 김정완 부군수, 위 등 의장을 비롯해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석해 올 한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전반에 대해 돌아보며 한국자살예방협회와 12명의 생명지킴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위 등 의장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때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재는 3개의 읍·면에 보급되고 있는 농약안전보관함을 점차 확대 보급해 자살위험 없는 장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 화순군, 농작업 안전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 도곡·도암면 복숭아작목반 수상 쾌거 시범사업노동시간, 경영비 감소 효과

화순군은 최근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의 '전국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경진대회'에서 도곡·도암면 복숭아작목반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박효진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도 농작업 안전성과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는 농촌자원 기술 보급과 실천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농업인을 3개 분야 62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행사다.

도곡·도암면 복숭아작목반은 올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복숭아작목반은 전문가 컨설팅, 안전장비 복숭아

적화기 등 4종 20점, 농작업 안전보호구 농약 방제복 등 7종 140점을 보급했다.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관리와 운동 교육을 15차례 진행하고 사업평가회도 열었다.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추진으로 통증 호소수치가 5.47에서 4.19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깨와 목에 부담이 가장 큰 복숭아 적화작업에 적화기를 활용한 결과, 노동시간은 23.4%, 경영비는 56.1% 줄었다. 노동시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과 함께 품질은 향상됐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 실천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해 농작업 안전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영안 기자

# 여수시 '무인정 활용 재난대응 시범훈련'

### 돌산읍 성두마을서 100여 명 참여 연안 감시와 인명 구조 활동 수행



여수시가 최근 돌산읍 성두마을 해상에서 무인수상정 등 기기 190점을 활용해 재난대응 시범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전라남도, 여수해양경찰서, 호원대학교, 진테크이앤지, LIG넥스원 등 10개 기관·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연안 감시정찰과 해상 복합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등이 주요 훈련 내용이었다.

훈련 기간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무인수상정 '해깅'이었다.

해깅은 무게 3톤 길이 8m 규모로 30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자율운항 제어, 통신모듈과 전자광학레이더 등 전자·IT·인공지능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해깅은 이번 훈련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연안 감시와 인명 구조 활동을

수행했다.

시 관계자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브카이크 단지와 쿠라이스 유전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공격이 훈련 배경이었다"면서 "여수는 대한민국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국가산이 있는 만큼 민·관·군·경·산·학 등이 협력해 비상대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P**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 영주시, 기부와 나눔 '선비정신을 실천합니다'

##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 정범진 前성군관대 총장 시상금 3천만 원, 전액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진정한 선비정신은 실천하는 데 있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학문을 닦아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었듯이, 사회적 기부와 나눔으로 선비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문(文)과 예(禮)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임을 직접 실천한 이가 있어 화제다. 제1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인 정범진(85) 前성군관대 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 前 총장은 지난달 29일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금 3,000만 원을 장학회와 모교에 전액 기탁했다. 기탁된 시상금 3,000만 원 가운데 2,500만 원은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되어 지역의 인재육성 위해 쓰이도록 하였으며, 모교인 안동 초등학교에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선비정신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정신가치인 선비정신을 세 계인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제정해 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선비대상 후보자를 공모한 후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정범진 前 총장을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 9월 20일 시상식을 갖고 상패와 시상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의 최초 수상자로 선정된 정범진 前 총장은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 각종 기고와 출판, 강연을 통해 선비정신을 알리는 등 평생을 정신문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아왔다.

정 前 총장은 “제1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후학을 양성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던 선비들처럼 지역의 인재육성에 시

금이 소중히 쓰여 진다면 더욱 뜻깊고 기쁜 일이라 생각해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장욱현 영주시장은 “선비정신실천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정범진 전 총장님의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총장님의 뜻을 살려 영주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을 앞두고 영주시에서 수여한 대한민국 선비대상의 뜻을 살리고, 선비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실천한 정 前 총장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감동이 지역사회에 퍼져 장학금 기탁과 모금이 이어지는 등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한편,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8년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하고 영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향우회와 동창회, 일반시민 등 지역민들이 크고 작은 성금을 모아 현재까지 168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광명시 하안2동, 밑반찬 나눔 행사



경기 광명시 하안2동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최근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30명에게 사랑의 반찬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바르게살기위원원은 아침 일찍부터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씻고 다듬어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밑반찬을 만들었다.

노영덕 바르게살기위원장은 “반찬을 전달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힘들지만 항상 바쁜 시간을 할애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준희 하안2동장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 포천시 '1사1경로당 사랑 나눔' 본격 추진

미송환경, 지현4리 노인회와 협약  
경로당 방문 준비한 음식 등 대접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4리 경로당이 최근 '1사1경로당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현4리 노인회가 화현면 제조업체 미송환경과 '1사1경로당 협약'을 맺은 후 처음 진행된 행사로 미송환경 대표와 임직원들은 지현4리경로당을 방문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사1경로당 협약' 사업은 봉사과 나눔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로당을 정식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지현4리 경로당은 화현면 13개 경로당 중 처음으로 '1사1경로당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조태성 지현4리 노인회장은 “노인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화현면과 미송환경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노

인회도 받은 정성과 사랑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오순 미송환경 대표는 “우리 미송환경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봉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며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준 화현면에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남 화현면장은 “화현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좋은 기업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주시면 더욱 살기 좋은 화현이 될 것 같다”며 “화현면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기 기자



## 이천, 쉼네스테크놀로지 '행복한 동행' 후원금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 150만 원 기탁  
'백사 키다리아이저사사업'과 결식아동 지원

경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에 소재한 쉼네스테크놀로지에서는 최근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백사 키다리아이저 사업'과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행복한 동행' 후원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쉼네스테크놀로지는 자동화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4년 설립됐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

해 후원금을 기탁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귀주 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말·연시에는 주변의 저소득 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그노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나눔 문화가 작은 씨앗이 되어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나눔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이후일 백사면장은 “기탁하신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생활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쉼네스테크놀로지의 아름다운 마음을 대상자에게 꼭 전해 드리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천/남시현 기자

## 영주, 가흥1동주민자치위원회 온열카페트 전달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앞장  
이웃사랑 실천수범 실천해 '훈훈'

경북 영주시 가흥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온열카페트를 구입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2가구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영주시 가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연탄배달 봉사, 소외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

온열카페트를 받은 김 모 할머니는 “집에 있던 전기장판이 고장 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선물

을 받아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문지운 위원장은 “살얼한 날씨인데도 많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발굴하여 다 같이 행복한 가흥1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연 가흥1동장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온열카페트 전달 봉사활동에 감사드립니다.”며 “가흥1동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취약계층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보성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 인적안전망과 협업해 지원

전남 보성군은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등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계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성/이용만 기자

## 봉화군, (주)승리건설 '사랑의 연탄' 기탁

지역 내 소외계층에 2천장 전달

경북 봉화군 봉화읍 (주)승리건설(대표 장계호)은 최근 지역 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2,000장(150만 원)을 봉화읍에 기탁했다.

장계호 대표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연탄 2,000장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

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장계호 대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 4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신승택 봉화읍장은 “해마다 봉화읍을 위해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정승초 기자

## 지역소식

### 경기안성 주민자치위원회 후원금



경기 안성시 양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양성면사무소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양성면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 '더불어 사는 자치양성 만들기' 일환인 '불우이웃돕기 농작물 경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양성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조일림 일원의 농경지에 잡초를 재배해 왔다.

김세기 위원장은 “잡초 재배에 적극 참여해준 위원들 덕분에 특색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진 양성면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 준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더불어 사는 자치양성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성/남시현 기자

### 파주(주)두성경로당실내자전거기탁



경기 파주시 조리읍은 최;근 파주시 소재 기업 (주)두성이 조리읍 등원2리, 장곡1리 경로당을 방문해 실내자전거 2대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주)두성은 건물 및 시설종합관리 전문 사회기업이자 여성CEO기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

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마희정 대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운동구가 없는 경로당에 실내자전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조리읍장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작은 바람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지역을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어주시는 (주)두성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파주/김영근 기자

### 연천군KT&G복지재단, 김장나눔

경기 연천군은 최근 연천공설운동장 북문주차장에서 KT&G 복지재단과 연천군무한돌봄센터, 새마을회, 노인복지관, 포천 3개 사회복

## 용인고 특수학급 학생들 3년째 김장김치 기부

직접 농사지는 유기농 배추 직접 담가  
80통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기탁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은 최근 용인고 특수학급 학생들이 김장김치 2kg 80통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김치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올해 학교 텃밭에서 직접 농사지는 130포기의 유기농 배추로 학생 13명

과 교사 4명, 학부모들이 함께 담근 것이다.

역삼동은 이 김치를 관내 저소득 홀로어르신과 복지소외계층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4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고 관계자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눔의 정신까지 배울 수 있도록 3년째 직접 농사를 짓고 김장까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용인/남시현 기자

## 여주 '사랑의 온수매트' 기탁

경기 여주 남한강로타리클럽이 여주시 드림스타트에 620만원 상당의 '사랑의 온수매트'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탁품에는 남한강로타리클럽 이태운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를 보냈다.

여주시 드림스타트는 기탁받은 온수매트 퀘이즈 10개와 심플사이즈 10개를 추운 겨울에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0명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한강로타리클럽 이태운 회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온수매트를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남한강로타리클럽은 지역 내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여주/남시현 기자

연천/김영근 기자



# 양주시, 그동안 배운 나의 재능을 맘껏 뽐내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6개 수강생들 직접 참여 기타교실·한국무용·경기민요 등 배운 기량 선보



경기 양주시 양주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19년 제9회 양주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 및 발표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희창 시의회의장, 안순덕 의원, 이운석 양주1동장, 기타 읍면동 자치위원장과 사무국장, 관내 기관단체장, 프로그램 수강생 등 300여 명의 동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폐회식과 프로그램

발표로 진행했다. 강인옥 주민자치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발표회는 김지철 사무국장의 진행 하에 주민자치위원회 공모패를 시상했고 이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6개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기타교실, 한국무용, 경기민요, 노래교실, 난타, 생활 댄스 순으로 공연을 진행하며 그간 배운 기량을 뽐냈다. 행사의 말미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와 수강생 등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즐기며 흥겨운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더불어 행사장 한 켠에는 서예교실, 한글교실 수강생들이 수강의 결과물로 작품을 전시해 공연장의 품격을 더욱 높게 만들었다.

강인옥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주민 화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회가 지역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였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운석 양주1동장은 "올 한 해 양주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참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동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여주시 미평동, '전통놀이문화 벽화 길' 조성



### 불법쓰레기 몰살 양지초 등하갯길 개선 벽면에 강강술래·연날리기·그네뛰기 등

전남 여주시 미평동이 양지초등학교 등하갯길에 강강술래, 연날리기, 그네뛰기 등 전통놀이문화가 그려진 벽화 길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미평동은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양지초 등하갯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비 1,450만 원을 들여 벽화 길 사업을 추진했다. 미평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전남대학교 학생회에서 담당 도색과 시설 설치를 했고, 폴리미래(주)(공장장 윤기엽)와 ㈜코인즈(대표 최명환)가 사

업을 보냈다. 전남대 학생회와 양지초 학부모회, 미평동 자생단체 등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양지초등학교 박태을 교장은 "학교를 올 때마다 쓰레기들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져서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장병연 미평동장은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미평동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면서 "앞으로도 이 길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남출 기자

# 부산시, 박물관이 선물하는 '힐링 타임' 기대

### 수험생 대상 '휴(休), 쉬어가는 박물관' 역사 강좌·전문문화체험 등 수험생 치유

부산시립박물관 오는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관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콘서트: 휴(休), 쉬어가는 박물관'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지친 수험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좌와 문화 공연,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콘서트는 △ 전통공예를 시작으로 △ 인문학 강좌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에는 '내안의 역사', '현대인의 탄생' 등을 저

술한 작가가자 역사학자인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가 나선다. 전우용 교수는 <현대 한국인의 몸과 마음을 만든 근대>를 주제로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역사 강좌를 쉽게 풀어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좌에 앞서 10시부터 진행되는 전통 공연에는 연희놀이 '더(the)콩'이 판공 공연으로 지친 수험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문화체험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다도체험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접수를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체험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오후 3시·오후 4시 30분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당 20명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궁중복식 체험과 탁본 체험도 진행된다. 체험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궁중 복식인 한복 체험을 통해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문학 콘서트는 부산시 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문화체험관에 제시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인문학의 힘을 알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에게 인문학의 전통적 공간인 박물관을 통한 진정한 휴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부산/최만식 기자

# 순천시, 김미수 작가 북콘서트

전남 순천시는 오는 12월 오후 7시 순천시립도서관에서 '생태부역'의 저자 김미수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생태 부역'은 삶의 근본을 찾아 헤매던 저자가 남편을 만나 독일 땅에 정착하고 냉장고 없이 살기, 다양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며 쓰게 된 책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시민들이 생태의 가치와 순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작가의 강연과 함께 '인디밴드 나뭇대'의 오프닝 및 연등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북콘서트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인원은 시민 1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례호수도서관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순천/김영민 기자

# 이금희 명예교수, 담양군에 소장도서 기증

### 이조실록 국역 고려사절요 등 3백권 평생 모아온 도서... 소장가치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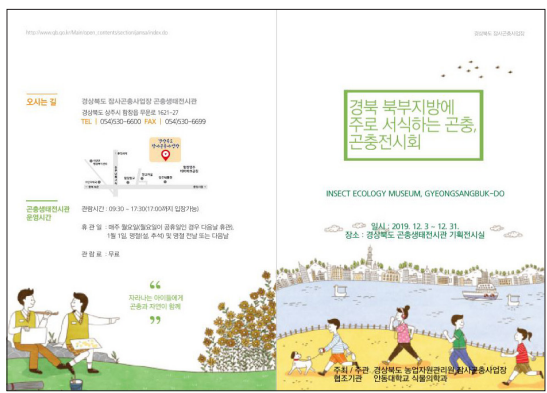
전남 담양군은 3일 삼지대학교 이금희 명예교수가 평생 모아온 소장도서 300권을 담양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한 책은 이조실록, 국역 고려사절요, 한국고전종합전집 등 국문학적, 역사학적으로 소

장 가치가 높은 책들이다. 담양읍 양각리에서 출생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이금희 교수는 "평생 모아온 책을 고향에 기증하게 돼 뜻깊다"며 "작은 나눔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인문학적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을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담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양홍근 기자

# 12월 잠사곤충사업장에 곤충 보러 오세요

### 경북도 곤충생태전시관 특별기획전 대학생들이 제작한 곤충표본 전시해



경북도는 잠사곤충사업장 내 곤충생태전시관에서 12월 한 달 간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대학생들이 제작한 곤충표본을 곤충생태전시관 내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특히 화분매개곤충인 꿀벌과 경북 북부지역에 서식하는 곤충인 잠자리·나비,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곤충인 사슴벌레, 밀원 낚시 등 다양한 곤충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된다.

경북/정승초 기자

# 광명시 너부대어린이합창단, 영상촬영 진행

### 한국동요음악협회 '새 노래 새 동요' 지역사회보장협 동 특성화사업 추진

경기 광명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광명5동 너부대 어린이 합창단'이 한국동요음악협회 '새 노래 새 동요'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5동 너부대 어린이 합창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덕배)가 동 특성화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매주 2시간씩 운영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래를 좋

아하지만 배움의 기회가 없는 복지소외계층 아동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전문 성악가로부터 노래를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촬영한 영상은 5년 간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촬영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그동안 연습한 노래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 노래 새 동요' 영상을 친구들과 볼거라 생각에 설렜다"며 이번 영상 촬영의 소감을 전했다. 전덕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나아가 광명5동과 광명시를 빛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사장: 김영근 / 편집국장: 정재두

서울본사: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1899-9659 /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집국: 02-2612-2959 /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 가50079

이메일: ekwk44@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u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좋은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

DMZ 청정 연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복수**  
연천군수인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천군수가 인증**

명품 브랜드로서  
**품질의 우수성 보증**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들여 생산된  
**청정지역 우수 농/특산물**

**연천군**



# 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범어역 현대건설 라클라쎬' 교통 및 입지조건 뛰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노후화 주택 및 아파트가 많아 신축 아파트마다 인근 거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도심 개발에 있어 대구시에서 전폭적인 행정적 지지에 따른 주거환경 개발 가속화로 신도심 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시공 참여 의향을 밝힌 대구 범어지역주택조합 '범어역 현대건설 라클라쎬'는 입지 조건을 비롯해 교통편, 학군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신혼부부부터 여러 폭넓은 세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 동, 총 861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A~C타입, 전용면적 84㎡ A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차 대수는 총 1,141대(법정 877대)이다.

단지 내에는 셀프세차장과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주차유도 시스템, 경관 조명 LED, 세대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특히 세대환기 시스템은 헤파필터와 급기 연동 후드를 이용해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차세대 환기 시스템으로 준비돼 주목받고 있다.

범어역 현대건설 라클라쎬는 대구여고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권 내에 동도초·병설유치원과 범어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대구동중, 경신고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명품 학군을 자랑한다.

범어네거리와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고, 수성구청, 동대구세무서 등의 관공서와 경북대병원 등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들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또한 범어공원, 야시골공원 등이 가까워 산책 및 운동,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호선 범어역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KTX/SRT 동대구역이 인접해 있다. 자차를 이용해 대구 전역 및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도로 및 철도를 통한 주변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범어역 현대건설 라클라쎬는 입주할 전 세대에 2,000만 원 상당(소비자가 기준)의 가전제품을 풀옵션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김치냉장고 및 전기오븐, 드럼세탁기, 빨래건조기, 에어컨, 에어드레서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관계자는 "수성구 전체 전용 59㎡ 아파트 3.3㎡당 평균 2,040만 원, 전용 84㎡ 아파트 3.3㎡당 평균 2,287만 원인데 비해, 범어역 현대건설 라클라쎬는 1,900만 원대부터 시작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며, "수성구는 지속적인 교통·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뛰어난 입지와 여건, 우수한 학군으로 지역 선호도가 높아 전입세대가 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2월 6일 그랜드 오픈 예정인 주택홍보관에서 문의 가능하다.

**범어네거리 바로 앞! 더블역세권!**  
**3.3㎡당 1,900만원대~ 파격가!**  
**범어역 ▲ 현대건설 라클라쎬 1600-0778**

